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 / 살레시오회

## 지지대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곳저곳 활짝 핀 꽃들이 아름다운 색을 뽐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꽃들은 바람의 흔들림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아름다운 색을 낼까? 겨우내 추위를 견디고 봄기운에 푸른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기까지 참 많은 시련을 이겨냈기에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빛, 희망을 마주 보고 서 있는 우리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듯 우리의 삶이, 믿음이 이웃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의 바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정치적·종교적 갈등, 이기심, 무관심 등)이 우릴 흔들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색을 뽐내며 사랑의 향기를 실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도원 정원에 꽃봉오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꺾여 있는 꽃을 보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세우는 일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간혀 있는 이들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빛의 사람들은 그들이 부활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그 희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꺾여 좌절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꽃피고 각각의 색을 뽐내며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상의 거센 바람 때문에 지지대를 세울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간혀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물길을 파고 전해 줄 이들이 필요합니다. 간혀 이들의 마음에 돋아난 푸른 싹을 알아봐 주고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부활의 빛을 비추어 줄 빛의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바람에 흔들렸던 마음을 되돌리고 우리와 빛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초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한 달이 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 어느 사형수의 글

200

1968년 7월 12일,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하여 처음 생각했던 날부터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 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의 정신은 진지했고 온통 죄 사함을 열망하는데 송두리째 불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기울여 나의 영혼이 한없이 자유로워지도록,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거추장스러운 무엇이 느껴지지 않는 명확한 존재로 드러나기를 염원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평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내 오랫동안 당신과 당신 편의 것들과 그리고 당신에 대하여 반대 방향에 서려는 것들에 대한 묵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여

어느 날 냇가에서 세월이 흘러간 자국이 신비롭게 새겨진 커다란 바위의 쪼개진 틈에 소나무 한 그루가 끼니를 거르는 아이의 얼굴빛으로 서 있기에 손을 뻗쳐 우악스럽게 뽑으려 했더니 조소에 찬 냉랭한 모습으로 굳게 부동하더이다.

놀란 가슴으로 들여다보니 바위를 끌어안은 억센 뿌리 끝에서 못내 바위가 썩어가는 것이 내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나이다.

그때 내 안에는 악한 것이 무성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그 너머 비탈에 한껏 자란 동백나무가 질푸른 몸에 순수함과 성실함과 모든 신앙을 앞지르며 당신의 단순성에 일치하여 풍요로 영화가 넘치기에 「나도 자라면 너의 영광이 피이겠지」

그러나 성장한 나에겐 참으로 이질적인 세력만이 왕성한 악으로 활개를 치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죽음 앞에 섰나이다.

두려움과 떨림과 망각의 심연에 파묻혀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그곳에 서기 위하여 끌려가나이다.

주여!

그토록 왕성하고 활력적인 세력들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변질됨을 깨닫기에 얼마나 우리는 무능했나이가.

이제는 주여!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신 당신의 가르침을 알 수 있나이다.

주여!

지금 아직도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당신이 보이옵기에 나도 죽고 세상도 죽으면 주님을 돌아보소서. 아멘. (갈라디아 6,14)

\*1975년 9월에 발행한 <빛> 간행물에 실린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수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적은 ‘어느 사형수의 글’입니다.



## 특별한 부르심

김복주 데레사\_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강직하시며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아버지와 늘 포근하시고 인자하시며 착하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철부지 막내로 자라온 때부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딸이 되었고 매일 매일 성체 안으로 불러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에 하루하루가 기쁨의 자체였습니다.

성소에 뜻이 있었으나 가정 성소를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사제로, 딸을 주시면 수녀로 봉헌하는 꿈을 안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었지만, 하루, 이틀, 일 년이 지나며 희망보다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내 영혼은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체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슬기와 지혜를 주십사 매달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울렸습니다.

“데레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는데 마지막에 “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으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엿매이던 시대 식구들이 한 분 한 분 세례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험벗고 굶주리고 갇힌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몸과 마음으로 메아리치면서 구치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다니던 도중 젊은 청년 중에서도 작고 여린 친구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던 청년이어서 그 마음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싶어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하였습니다. 차츰 밝아지고 미사 시간에 독서와 신자들의 기도도 하며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에 지난날 제가 받았던 특별한 부르심이 떠올랐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 분노에 가득 찬 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열매를 맺고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희망의 메시지로 영혼의 순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고 봉사의 정신을 키워나가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오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탈출 2,10)라고 하면서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모세의 생애와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며’, 홍해 바다의 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은 모세의 청년 시기에도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때려죽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탈출 2,11-12). 그런데 과연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파라오의 딸이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삼고 그렇게 이집트 파라오 궁에서 살았다면, 자신을 이집트인으로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여기엔 모세의 어머니 돌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져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 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샀을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탈출 2,7-10).

젖을 땔 무렵에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젖을 먹일 때는 집에서 먹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기 정체성은 젖떼기 전에 형성된 것일까요? 그보다는 어머니가 유모로 궁에서 함께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젖을 먹이는 역할에서 끝나기보다, 아이의 자랄한 돌봄, 기본적 소양 교육 등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어찌면 모세는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찌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유모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신의 신세가 서러웠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포레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한계를 안타까워했기에,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에게 맞서 싸웠고 또 동

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끼어들었던 것(탈출 2,14)일 것입니다. 분명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데 나설 수 있는 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돌봄과 가르침이 컸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봄이 모세의 자의식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돌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모세의 누이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부모가 자신의 동생을 왕골 바구니에 넣어 강가 갈대에 놓아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이가 그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차마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하염없이 집에서 울고만 있었을 터인데, 누이는 자기 동생을 강가 갈대에 놓고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탈출 2,4) 있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면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얼 할 수 있느냐며 낙심하며 포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그 바구니 속 아이가 우는 것을 발견한 여인이 그 아이를 붙잡고 여기는 것을 보자 얼른 나섭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자신의 가족을 좋은 과외 선생으로 소개해주듯, 자기 어머니를 좋은 유모로 태연히 추천합니다. 이런 누이의 순간적인 기지로 어머니는 모세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민족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방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정 후원자, 봉사자분들은 이런 누이처럼 수용자, 수용자 가족들, 출소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멀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주십니다. 그러다 혹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태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어떤 출소자분들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돌아갈 가족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출소자분들은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강가에 떠 있는 바구니 속에서 울고 있는 모세와 같은 이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방향도 함께 모색합니다. 창업하게 되면, 또 방문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모습에서 모세 어머니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모세 누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교정사목 후원자,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용자, 수용자 가족, 출소자, 범죄 피해자분들이 이분들 도움으로 훌륭한 ‘모세’가 되어서 다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건져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바웃 타임

2015년 하반기 창업대출자 허OO

시간이 어떻게 저를 스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인의 몸에서 사회인이 된 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이란 시간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와 실패와 다시 전진이었습니다.  
기회는 바로 빛의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말 그대로 창업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복귀 후의 창업의 실패지 제 인생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전진이었습니다.

창업의 실패는 다른 창업을 할 기회를 주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소중한 실패였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도 맞지만, 시간 또한 준비된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란 분명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맞습니다.  
실패를 기회로 또 다른 전진의 계기를 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 받은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 음식점과 대리기사로 일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실패 후에도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에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지원해준 창업의 기회는 비록 그 순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을 더 긍정  
적으로 나갈 소중한 기회이기에 창업의 순간과 시간, 실패의 순간과 시간을 자기의 긍정에너지로  
흡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길00입니다.

3월 영치금 입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입금자란에 '천주교사목회'라고 적혀있더군요.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넣어주신 건 아닐 테니...

아마도 교도소 측으로 전달된 후원금이 담당 직원분을 통해 제 손에까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올 당시부터  
남부교도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 동안 모든 게 중단된 채로(접견, 출력, 전화, 운동) 모두  
격리 생활을 하다시피 했었고, 취장 수용자가 확진되는 바람에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요.  
저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실제로 3주간 격리되기도 했었습니다.

한창 격리 생활로 불안하던 1월 중순쯤엔, 입금자란에 '목동 성당'이라고 적힌 영치금 영수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마음 써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영치금 쪽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용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건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전해졌기 때문인 듯합니다.

굳이 직원분에게 부탁해, 사목회 주소로 편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목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길00 드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께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신한 100-019-558299

우리 1005-700-335190  
하나 209-910017-31705

국민 375301-04-003539



## 2021년 4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6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기쁨과희망은행 대출금리 2% → 0.5% 하향 조정

기쁨과희망은행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기쁨과희망은행 제9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출금리를 2%에서 1.5% 삭감한, 0.5%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여러분들이 대출하신 창업자금의 이자는 확정금리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남아있는 대출금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현실의 벽은 아직 높고 험하지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자율을 낮추어 상환금 삭감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자활 노력에 우리 기쁨과희망은행이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위원회를 비롯한 은행의 직원, 운영위원 그리고 후원회원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상환해주시는 금액은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17~3/17)

2021년 2월~3월에는 김영호 바오로, 김옥기 소피아, 김은주 세실리아, 김정대 제노비오, 민병진, 박덕희 보노사, 박창식 라자로, 백정희 가리파스, 윤재임 안나, 윤정석 베드로, 전원자 베로니카, 정양희 마리아, 최명숙 마리아막달레나, 홍명덕 글라라, 황해연 세라피나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고나무, 김일선, 신미자 세실리아, 조민용 야고보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